한양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글로벌인재(중국어) 모의Essay 출제의도 및 평가지침

1. 출제의도:

생명공학에서처럼 주변의 많은 자연현상도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 사고하도록 계발시킬 수 있다. 생활하는 가운데 세심한 사람이 되어 주변 일상의 온갖 형상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익숙한 일상의 현상으로부터 인생의 철리를 깨닫고, 사고하기에 힘쓰고 즐겨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모든 고교생이 노력하는 목표의 하나이다. 때문에 본 논술의 주제를 "관성과 인생"으로 정하고자 한다.

"惯性"은 물리학의 한 개념으로,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등속으로 직선운동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리킨다.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도처에서 관성의 작용을 볼 수 있다. 어떤 때는 너무도 자주 보는 것이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 관성이 갖는 폭발적 힘이 사람을 매우 놀라게 한다. "惯性"은 물체 고유의 속성으로,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으나, 이러한 특성의 존재와 특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히 활용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거꾸로 관성의 영향력을 홀시하면, 생각지도 못한 대재난을 몰고 올 수 있다.

기실 사람도 관성을 가진다. 사람의 음식습관과 기호행위 심지어 사고방식까지도 모두 관성이 있다. 이 역시 본래 단지 사람의 행동과 사상에 있어서의 속성일 뿐이어서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방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옛말에 "악행은 작다고 하더라도 하면 아니 되고, 선행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런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보기에 본래 주의를 끌지 못하던 행위 또는 생각도 모두 관성의 작용으로 인해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논술 문제의 제시문들은 관성과 관련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험생이 어떻게 관성의 인생에 대한 영향을 인식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 중의 관성 작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에 대한 사고도 평가하고자 한다.

2. 평가 항목과 기준

전체적으로 수험생의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아이디어 도출 능력과 작문능력을 평가한다

(1) **내용의 정확성** : 적절하고 정확한 주제 확립과 제시문의 함의 분석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

a. Task 1:

第一题：根据阅读材料[A]和[B]中例子，谈谈"惯性"会给人生带来哪些影响？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사례를 해석하고 귀납 정리하는 능력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시문[A]는 일상생활 중의 물체가 관성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가운데에서 관성이 너무도 보편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홀시당하지만, 관성이 실제로는 거대한 역량을 감추어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관성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욱 활용하거나 혹은 그 위험을 방비하면, 생활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제시문 [B]는 사람의 행위나 사고방식에서 표현되어진 관성 관한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는 굶주린 경험의 관성이 가져온 비정상적인 물건 비축 습관이다. 두 번째 사례는 복권당첨 경험 후 부적절한 인식이 초래한 관성의 영향이다. 제시문[A]에서 [B]까지 "관성"이 고유하게 존재하는 일종의 자연 속성이라는 설명 이외에, "관성"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대체로 강조하고 있다.

b. Task 2:

第二题：结合个人经验，谈谈如何处理好人生中的惯性作用。

이 문제의 답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하겠다. 제1번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험생은 자신이 가장 인상 깊은 "관성"의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증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관성"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거나, "관성"의 잠재적 특성에 착안할 수도 있으며, 또한 "관성"의 폭발적 영향력이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영향력에 착안하는 것이다.

논술의 요점은 관성의 “작용”과 그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논하는 것이다. 즉,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미리 방비가 필요할지 아니면 더욱 활용할 것인지? 등을 논할 수 있다. 논증을 할 때, 하나의 예를 이용하여 손익을 논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예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비교할 수도 있다. 수험생은 자신의 입장에 근거하여 적극적 영향 또는 소극적 영향을 강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적절히 예를 들어 밝혀야 하며, 공허하게 논점을 중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점이 제2번 문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중점이다.

(2) 독창적인 견해와 논리적인 흐름 :

이번 논술의 평가 중점은 제시된 사례에 대한 수험생의 해석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역 능력이다.

첫 번째 문제는 해석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즉, 사례를 분석하여 특성을 귀납하고 철학적인 인식을 총괄해 내는 것을 본다. 귀납하고 총괄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특성들 사이의 비율, 병존, 대비 등의 관계를 주의할 수 있다면, 더욱 해석력을 갖춘 논술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문제는 추론하고 연역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즉, 자신이 얻은 철학적 성격의 인식을 실생활과 인생의 사례에 적용하여, 이러한 관점이 실제 문제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지 평가한다. 평범한 사례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밝혀내거나, 참신한 관점에서 신선한 사례를 발굴하여 해석한다면, 비교적 우수한 답안으로 볼 수 있다.

(3) 전체 구조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

일반적으로 두 문제의 비중은 각기 전문장의 반을 차지하여 한다. 구체적 예시에 의거하여, 약간의 편중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각 문제의 논술이 전문의 1/3 이하의 분량이어서는 안 된다. 문제마다 1-2개의 문단으로 답하여, 전문이 2-4개의 문단을 이루면 이상적이라 하겠다.

(4) 중국어 표현.문법.철자 :

논리만큼 중요한 평가 척도가 중국어의 표현 능력이다. 적절한 표현과, 정확한 문법, 정확한 한자 등 작문에서 드러나는 언어 구사 능력을 총점의 30%로 평가한다.

(5) 형식과 분량 : 제한된 분량 내에서 완정된 한 편의 논술을 완성하였는지를 평가. 지시사항(일반 지침)의 준수 여부, 분량의 초과 및 미달 여부 등을 감점

450-500자일 경우 만점이다. 이보다 +/-10자 이내는 감점하지 않는다. 440-510자를 기준으로 이보다 +/- 20자씩 차이가 날 경우 순차적으로 1점씩 감점한다. 문자는 간체자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번체자로 작성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간체자에 번체자를 섞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단어의 수량에 비례하여 감점한다.

3. 평가 항목 별 비중

형식과 분량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독창적 견해와 논리적 흐름	전체 구조	중국어 표현·문법·철자
감점	30%	30%	10%	30%

4. 종합 평가 지침

각 Essay를 전체적으로 A+, A, B+, B, Fail로 평가하면서, 위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총점을 90±6으로, 즉 84점~96점 사이에서 채점한다. 아주 우수한 Essay에 대해서는 97점~100점으로, 기준 이하의 Essay에 대해서는 80점~83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84점~96점 범위에 드는 Essay의 채점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가능한 1점 단위의 등위로 상대 평가한다.

종합점수	A+ (100−97)	A (96−91)	B+ (90−84)	B (83−80)	Fail (59−50)
평가내용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시키는 또는 그 이상으로 우수한 Essay	논제의 내용에 정합하고 평가항목을 거의 충족시키며, 생각이 심화 발전적이고 (원인분석, 목적 지향) 논리적인 Essay	논제의 내용에 적절하고 평가항목을 상당히 충족시키며 논제에 대한 생각의 심화가 미흡한 Essay	논제의 내용이 부실하고, 평가항목 기준 이하인 Essay	−논제와 관계없이 피상적인 Essay −10행 미만